

백성욱의 『금강경』 독송 수행법 실천사례 연구

김희중*

• 목 차 •

- I. 서언
- II. 『금강경』 독송 수행법과 선행연구
- III. 실천사례 체험 연구 절차
- IV. 『금강경』 수행자의 체험
- V. 맺는말

* 동국대학교 대학원(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261-289.

한글요약

본 고찰은 수행자들이 백성욱의 『금강경』 독송 수행법을 실천한 체험에 대한 탐구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금강경』 실천 수행자 중 11명을 선정하여, 2020년 8월~2021년 2월까지 각각 2~3회, 60분~1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수행일지, SNS 문답, 전화 통화내용 등을 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참여자들은 이타적인 기도로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쉽게 하는 것 같다. 부처님 기쁘게 해 드리는 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훨씬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는[一切唯心造]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난제에 대한 분명한 탈출구를 찾게 되었다. 셋째, 『금강경』의 실천으로 재앙은 착각이며 분명히 소멸됨(空의 진리)을 체험하였다. 넷째, 기도의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며 누구나 실천 가능하여 저마다의 난제는 달라도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 과학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다섯째, 매사에 먼저 험떡이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 근본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대부분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무능(無能)에서 벗어나 큰 능력자가 되며, 무지(無智)에서 벗어나 큰 지혜(智慧)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 새 정신이 나면서 경전에서 말하는 ‘참나’의 발견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체험의 깊이가 더욱 깊은 참여자는 자신의 존재감이 전 우주와의 교감 및 연결로 체험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금강경, 백성욱, 바치는 법, 금강경 독송, 부처님 시봉

I. 서언

이 글은 오늘날 불교 수행의 한 방법인 『금강경』 독송 수행법을 실천한 체험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금강경』은 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불교 종파에서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금강경』 독송을 수행 방법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금강경』 독송이 불교 수행법으로 체계를 갖추고 『금강경』 독송회¹⁾라는 수행 단체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백성욱¹⁾(白性郁, 1897~1981)부터였다.²⁾

그는 수행자이자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학자였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1,000일 기도 정진을 하여 숙명통(宿命通)을 얻은³⁾ 금강산 도인⁴⁾으로 알려지면서 ‘선불장(選佛場)’⁵⁾이라는 결사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선불장’은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수행 공동체였다.⁶⁾

이 수행 공동체는 산중불교·승려불교에서 도회지불교·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촉

-
- 1) 백성욱은 본명이 ‘백준(白峻)’이며 ‘성욱(性郁)’과 ‘일곤(壹閫)’은 법명이다. 그는 ‘무호(無號)’ 혹은 ‘무호산방(無號山房)’이라는 필명으로 『불교』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투고했다.
 - 2) 정천구, 「금강경 독송 수행법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4, p.8.
 - 3) 『대한불교』 1970.5.31, p.2. 「백성욱 금강경 총설」, 백성욱이 1970년 5월 25일, 삼보회관에서 행한 강연 요약에서 1,000일이 되니 나의 전생·병들어 누워 있던 나의 전생을 보는 숙명통을 얻었다고 하였다.
 - 4) 김기룡, 『금강산 수도에 미륵부처님 친견기』, 불교통신교육원, 1983, p.79. 금강산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장안사 현의룡(玄懿龍) 주지 스님은 현재 만폭동보덕굴(萬瀑洞普德窟)에서 수도하고 계시는 독일철학박사 백성욱씨가 유명하다고 하였다.
 - 5) 선불장(選佛場)은 부처(佛)를 뽑는[選] 장소[場], 부처님을 만들어 내는 장소라는 뜻이다. 중국 고봉 스님의 『선요(禪要)』의 ‘개당보설(開堂普說)’에 방거사(龐居士)의 계승이 다음과 같이 있다. ‘十方同聚會 箇箇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 ‘시방세계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마다 함이 없는 법(無爲)을 배우나니, 이것이 부처를 선별하는 도량(選佛場)이라. 마음이 공(空)해 급제하여 돌아가네.’ 『고봉화상선요·어록』, 통광 스님 역주, 불광출판사, 1993, p.37.
 - 6) 김광식, 「백성욱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 역사와 성격」, 『민족사상』 제15권 제1호, 2021, pp.131-132.

구한 만해 한용운마저 제시하지 못하였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⁷⁾

그는 10년간(1929~1938) 금강산 안양암과 지장암에서의 수도 생활을 마치고 광복 후에는 건국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내무부 장관직을 필두로 한국 광업진흥 주식회사 사장, 동국 대학교 총장직 등으로 이어지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1961년에 동국대학교 총장직을 사임 후 1962년부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백성목장에서 『금강경』 독송을 요체로 하는 수행법⁸⁾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면서, 국내에서 『금강경』을 통한 수행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⁹⁾

지금도 후학들에 의해 그의 가르침이 전해져 실천하는 수행 단체가 여러 곳 있다. 1973년에 설립하여 포항 및 서울 등 국내와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활동해 온 금강경독송회는 1992년 사단법인 청우불교회 금강경독송회(이사장 김재용)로 발전하였고, 1988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된 바른법연구원은 2003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¹⁰⁾)으로 발전하며 무료급식과 매년 금강경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재단법인 백성욱 박사 기념재단 청우지혜교육원(이사장 김원수)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세워진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동규)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회 활동 중이며, 2018년 만해학회에서 ‘만해 한용운과 백성욱’이라

7)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0.; 김광식, 「만해 한용운의 간화선과 대중불교론」, 『불교학보』, 제80집, 동국대출판부, 2017.

8) 김희중,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수행공동체 연구」, 『민족사상』 제15권 제3호, 2021, p.141. 『화엄경』에서 『금강경』으로 전향하여 수행법으로 확정한 시기는, 백성욱 박사가 소사도량으로 들어간 1962년 전후로 보여진다. 즉 그가 소사 도량을 개설한 이유는 이 가르침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금강경』을 수행으로 이끈 고승은 없었고 본인의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다.

9) 김희중, 위의 글, p.141. 『화엄경』은 대승경전중 최고의 경전으로 부처님의 웅대한 살림살이를 그대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화엄경』을 읽다 보면 뜻만은 하늘처럼 커지지만, 몸으로는 웅대한 살림살이에 합당한 복을 짓지 못하고 땅에 처져 있어서 중생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백성욱 박사는 “그대가 마음 닦아 밝아지고자 한다면, 먼저 몸으로 부처님께 복을 지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0) 김원수는 1967년에서 1971년까지 4년간 소사 도량에서 백성욱 박사를 모시고 전일 출가하며 공부했다. 도량 생활을 마치고 스승의 권유로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다면적 측면에서 백성옥 박사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¹¹⁾ 같은 해에 한국불교사학회 집중세미나에서 백성옥 박사에 대한 연구 발표¹²⁾가 있었고, 비영리 민간연구단체 사단법인 백성옥연구원(이사장 정천구)은 수차례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많은 논문들이 학술지에 발표¹³⁾되었으며, 백성옥 박사 탄신 123주년 기념문집인 『금강경 독송과 마음 바치는 법』을 발간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1976년에 설립된 ‘도서출판 김영사’ 회장 김강유는 1977년에 이광옥 법사와 함께 해화법당을 개설하였고, 지금은 용인 지역의 “여시관(如是觀)” 법당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백성옥 박사 기념재단 청우지혜교육원은 2020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에서 10년 동안 매년 주최해 온 금강경 연수원 프로그램을 이어받아 계발하고 있다. 매주 주말출가와 일요법회 그리고 BBS 불교방송 및 BTN 불교 TV 등 각종 법회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영사 출판사’ 회장 김강유¹⁴⁾는 2021년 추모일(9월 25일)을 기념하여 백성옥 박사 기념문집 총 6권¹⁵⁾을 발행하였다.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그의 글과 강의

-
- 11) 김광식, 「백성옥의 삶과 한용운」, 『만해학보』 제18호, 만해학회, 2018.; 정천구, “백성옥의 불교사상”, 『만해학보』 제18호, 만해학회, 2018.; 김호키, 「백성옥의 『금강경』 경문의 이해와 그 특징」, 『만해학보』 제18호, 만해학회, 2018.; 김은영, 「백성옥과 동국대학교」, 『만해학보』 제18호, 만해학회, 2018.; 김성규, 「백성옥의 평수잡조와 인문학적 글쓰기」, 『만해학보』 제18호, 만해학회, 2018.
 - 12) 고영섭, 「무호 백준(백성옥)의 학문과 사상」, 『한국불교사연구』 14호, 한국불교사학회, 2018, pp.36-78.
 - 13) 김강녕, 「백성옥 박사의 경제사상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원혜영, 「백성옥 박사의 과학관과 수행정신 : 인간수행과 우주원리의 등가성」,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정경환, 「백성옥 박사의 세계관과 정치철학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정천구, 「백성옥 박사의 삶과 수행정신 : 원효대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제14권 제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정천구, 「백성옥 박사의 불교철학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정천구, 「백성옥 박사의 삼지(三枝) 사회조직론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14) 김강유는 1970년 가을, 학생 신분으로 백성옥 박사를 찾아뵙고 사사하였다. 그 후 1976년에 ‘김영사 출판사’를 설립하여 현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당시 이름은 김정섭이었으나 후에 김강유로 개명하였다.
 - 15) 백성옥 박사 전집 6권(2021년 9월 23일 발행)은 다음과 같다. 1권 『백성옥 박사의 금강경 강화』, 2권 『백성옥 박사의 인류문화사 강의』, 3권 『분별이 반가울 때

가 새롭게 수집·정리돼 있으며 총 6권으로 구성됐다. 그의 강의와 법문을 정리하고, 역사 자료와 도서관 문헌 등을 추적·발굴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수록했다. 최근의 이러한 노력들과 기존의 자료들¹⁶⁾에 의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백성욱 박사에 대한 연구토대가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의 핵심으로서 이론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금강경』의 핵심 진리에 입각하여 『금강경』을 해석하면, 실천 가능한 『금강경』, 알기 쉬운 『금강경』, 실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금강경』이 되어 수행서 내지 신앙서가 된다. 그리하여 『금강경』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빈곤을 풍요로, 병을 건강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기에 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할 수 있다¹⁷⁾.

II. 『금강경』 독송 수행법과 선행연구

『금강경』을 선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1968년 봄,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백성욱이 해인사 원당암의 지헌수자(知憲修者)에게 띄운 편지가 좋은 지침이 된다.

미륵존여래불(彌勒尊如來佛)을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궁리를 가지면 병(病)이 되고 참으면 폭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닦는 사람의 항복기심(降伏其心)이라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닦는 법을 강의 듣는 마음으로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시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가 해탈이다 : 백성욱 박사 법문집, 4권 『백성욱 박사 문집』, 5권 『금강산 호랑이: 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 6권 『웅작여시관 : 백성욱 박사 전기』.

16) 김기룡, 『金剛山 修道에 彌勒부처님 親見記』, 불교통신교육원, 1983; 정천구,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백성욱연구원, 1986; 김재웅, 『닦는 마음 밝은 마음』, 용화, 1989; 김원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김영사, 1990; 김재웅,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용화, 1992; 김동규, 『활불로 추앙받던 백성욱 박사님의 금강경 이야기』,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09;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백성욱 박사의 인류문화사 특강』,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15.

17) 김원수,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공경원, 2013, pp.8-9.

이와 같이 백일(百日)을 일기(一期)로 하여 대략 10회 가량 되풀이하시면, 숙명통(宿命通)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상(我相)이 없어진 연고입니다. 이것을 초심 불교의 행상(行相)이라고 할까요?

주의하실 일은 공부(工夫)하셨다면 탐심(貪心),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嗔心), 공부가 잘 된다면 치심(癡心)이니, 이 세 가지 아니하는 것이 수도(修道)일진대 꾸준 하만 하시되 아니 하지만 말면 뉘이라. 고인(古人)은 ‘사사이면면 불가이근근(使可以綿綿 不可以勤勤)’이라 했지요.¹⁸⁾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며 『금강경』을 실천하는 바치는 가르침은, 진정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가능케 한다. 백성옥이 밝힌 불교의 현대화는 우리 각자가 사는 각자의 집을 각각의 법당으로 삼아서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니 이것이 불교의 현대화인 것이다. 불교의 대중화는 먼저 밝은이를 모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생각을 떠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부처님’하고 바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불교의 대중화라 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부모형제 처자권속 가솔이 딸린 생활인이기에, 아침에 남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금강경』 읽고, 또 저녁에는 남보다 30분 늦게 자며 『금강경』을 읽고, 낮으로는 주어진 일과 닦치는 모든 일을 싫다하지 않고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모두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임한다면, 겉보기엔 속인들의 세상일 같지만 내용은 부처님 일이 되는 마음이 밝아지는 일이니,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생활화라 하였다.¹⁹⁾

『금강경』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사상이나 선리(禪理)를 다룬 경우와 경전의 일부분만을 논한 경우 등 다수가 있지만, 수행법을 중심으로 소개된 논문은 소수²⁰⁾이다. 최근 들어 불교계에 승속을 불문하고 『금강경』 독송이 많이 유행되고 있지만, 수행법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논문은 다른 수행법²¹⁾에 비해 거의 없는 실정²²⁾이고, 부분적인 개인 수행

18) 백성옥,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 김영사, 2021, pp.18-19.; pp.27-28.

19) 김동규, 『활불로 추앙받던 백성옥 박사님의 금강경 이야기』,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09, p.333.

20) 정천구, 「금강경 독송 수행법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4.; 신명희(정운), 「金剛般若波羅密經의 수행체계 연구」,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

담 정도가 소개²³⁾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으로 『금강경』을 1년 이상 10년 이하 독송한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체험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경』 독송 수행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질적인 분석 방법을 택한 이유는 수행 중의 복잡하고 심오한 주관적 경험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의 체험들을 좀 더 생생하고 깊이 있게 알아내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질적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는 가설 검증보다는 발견 및 해석에 중점을 둔다.²⁴⁾ 자료의 분석 방법은 의미단위(meaning unit)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주제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이는 핵심 진술문을 찾아서 그것에 개념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²⁵⁾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금강경』 독송 수행법의 경험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독송 중에 올라오는 자기의 생각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금강경』 독송 수행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실천이다. 바치는 실천 중 어떤 경험을 했는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금강경』 독송 수행법을 통해 생활영역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금강경』 독송

21) 박성현외 5인, 「간화선 수행 체험의 심리학적 분석」, 『종교연구』 제71호, 한국종교학회, 2013.; 박성현·박정숙, 「집중적 위빠싸나 명상 경험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18호, 2006.; 박성현외 2인, 「자애명상의 심리적 과정 및 효과에 관한 혼합연구 : 자애미소명상수행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8호, 2016.; 성승연·박성현, 「간화선 집중수행 체험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23호, 2011.; 황상준,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 재가불자의 가피 사례연구」, 『한국불교학』 제86호, (사)한국불교학회, 2018.

22) 김희중, 「금강경 독송과 가피 사례 고찰」, 『2020년 한국불교학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2020.

23) 정천규, 「금강경 독송 수행법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4, pp.29-32.; 정천규, 「白性郁 博士의 佛敎思想에 관한 小考」, 『釋林』 제19집, 1985, pp.623-624.; 김원수, 『우리는 늘 바라는데로 이루고 있다』, 청우당, 2018.; 금강경독송회,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용화, 1996.

24) 메리암 사란 B, 『질적 사례연구법』, 허미화 역, 양서원, 1998, p.31.

25) 임혜영,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불교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비불교인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43호, 인도철학회, 2015, p.227.

수행법을 통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까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실천사례 체험 연구 절차

1. 실천사례 조사

사례연구란 맥락 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나 하나의 사례(또는 여러 사례들)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경계 지어진 체계는 시간과 장소에 의한 경계를 갖게 되며, 그것이 연구되는 프로그램, 사건, 활동, 개인들이다.²⁶⁾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금강경』 독송 실천법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 출가프로그램과 금강경연수원 수련회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체험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참가 후 매일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였다. 『금강경』 독송을 1년 이상 실천한 체험자들에 관한 자료 수집을 폭넓게 하기 위해 관찰, 면접, 문서 등과 같은 다중적인 정보원들을 활용하였다.

즉 문서나 문서 기록, 면접,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들을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 또는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삽입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연구자에 의해 주제나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나 주장들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사례의 맥락 또는 사례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풍부해진다.

2.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발견들을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참여자 선정이 중요하다.²⁷⁾ 이에 다음과 같은 의도적 표집

26)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원제 :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학지사,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p.87.

을 하였다.

첫째, 일상의 구체적 현상이 탐색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범회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말 출가프로그램 및 하계 금강경연수원수련회 참석을 한 경험자로서, 1년 이상 『금강경』 독송 수행을 지속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금강경』 수행도량 지도자의 추천을 통해 수행의 깊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보완하였다.

셋째, 자료의 포화를 고려하여 『금강경』 실천 수행법을 생활화하는 수행 경력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총 11명(남자 3명, 여자 8명)의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20대에서 70대까지로 20대 1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 60대 2명, 70대 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거의 매일 『금강경』 독송을 해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적사항과 수행경력 및 직업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2021.02. 기준)

별칭	성별	연령	직업	금강경 독송 기간	이전의 다른 공부 기간	이전의 주요 수행경험
하심	남	60대	회사원 퇴직*	10년	5년	생활참선, 절 수행
연화	여	50대	회사원*	2년	10년	기독교
미영	여	40대	회사원*	2년	2년	교학공부, 절 수행
영택	남	20대	대학생*	1년	1년	절 수행
효선	여	30대	회사원*	2년	5년	아비라 기도, 절 수행
선현	여	60대	자영업*	2년	8년	절 수행, 교학공부

27)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110.

순희	여	40대	보험업*	2년	5년	위빠사나 수행
인숙	여	50대	CEO*	1년	5년	절 수행
준석	남	50대	CEO*	3년	5년	교학공부, 절수행
발보리	여	70대	주부*	3년	30년	절 수행, 염불
정진행	여	40대	회사원*	2년	20년	개신교, 천주교, 교학공부

* ‘하심’은 직장을 정년퇴직하여 현재 봉사활동 및 수행 중이다. 그는 다양한 수행법을 섭렵하였지만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정진중이다.

‘연화’는 기독교인으로 10여년 지내다가 『금강경』을 만나 공부 중인데 절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니 매우 공부가가 빠르게 되어가는 중이다. 회사원으로서 실생활에도 적극 『금강경』 가르침을 적용하여 마음공부를 실감하고 있다.

‘미영’은 다양한 불교 수행을 통해 자부심이 강한 불자로서 보살 불교에 관심이 많아 『금강경』 수행에 매진 중이다.

‘영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으로 불교를 만난 지는 부모님에 의해 최근에 만났지만 어릴 때 이해 못했던 고통들을 하나하나 『금강경』 실천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효선’은 미혼으로 아버라 기도 등 철저한 수행 생활을 많이 했는데, 『금강경』 수행을 만나 한층 더 편안한 수행으로 회사원 생활을 잘하고 있다.

‘선현’은 개인 사업을 성공하였지만 가정의 업보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는데 『금강경』 공부를 통해 우울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가지고 있다.

‘순희’는 보험업에 오래 종사하여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지만 집안 안팎으로 각종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모든 재앙이 본래 없다는 『금강

경』 가르침에 심취하여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숙’은 1인 기업가로서 어려움에 처한 자금 사정을 해결하여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건강한 기업가로 길러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200인 직원을 자립시키도록 하는 원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준석’은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하였지만 모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어려움을 『금강경』 실천으로 해결하면서, 수행법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심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발보리’는 가정주부로 1남 3녀를 키우며 가정의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주변 사찰의 새벽기도를 다녔지만, 근래에 기복적인 공부가 아닌 금강경 뜻을 알고자 체계적인 공부를 하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행의 참맛을 알아가고 있다.

‘정진행’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오랜 기도 생활과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착실히 했지만, 인연에 의해 2년 전부터 금강경 공부를 만나 종교간의 차별을 초월하여 참나를 만나는 여정을 행복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면담의 진행은 2020년 8월~2021년 2월까지 각각 2~3회, 60분~120분 정도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녹음 등에 관한 동의 이후 아래의 8개 항목에 대해 준비된 질문지로 실시되었으며, 참여자 편의를 고려하여 법당 등에서 진행되었다. 구술된 면담자료는 모두 글로 기록하였으며 그 외 수행일지, SNS 문답, 전화 통화내용 등이 분석되었다.

- 1) 『금강경』실천 기간과 동기
- 2) 『금강경』실천이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 3) 『금강경』 실천을 할 때 가장 인상적인 수행 체험담이 있다면?
- 4) 『금강경』실천이 일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5) 『금강경』실천이 잘 되는 조건은?
- 6) 『금강경』실천 중 효과를 본 것은?
- 7) 『금강경』실천 후 달라진 점은?
- 8)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가?

4. 연구의 타당성 확보와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를 위해 11명의 참여자를 바른법연구원에서 선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바른법연구원에서 『금강경』 실천수행²⁸⁾을 하며 여러 난제들을 해결²⁹⁾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른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회 활동을 1993년부터 참여하였으며, 2008년에는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로 명예퇴직하여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의 무료급식소로 전일 출가³⁰⁾를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과 백성옥 박사 기념재단이 진행해 온 하계 금강경연수원 수련회³¹⁾에 매년 참여하였고,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조장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해 왔다. 바른법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주말 출가프로그램³²⁾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주 참가하였기에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금강경』 실천 수행자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이들을 중 질적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할 수가 있었기에 연구대상 수행처로 정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엄밀히 고려하고자 첫째, 구술정리 및 의미도출 과정에서 참여자 검토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 전문가 2인, 불교학 전공의 박사수료 2인, 『금강경』 실천 수행 지도자 1인에게 수집과 분석에 대한 검토를 받

28) 『현대불교』, 「생활 속 수행의 달인 - <금강경> 독송 김희중 거사」(2008.10.16.)

29) 『월간 불교와 문화』, 「원망을 자비로 승화하는 방법 - 김희중 바른법연구원 이사」(2010년 10월호).

30) 『법보신문』, 「날마다 좋은 날, 금강경 독송, 부부 시련엔 금강 처방이죠」(2008.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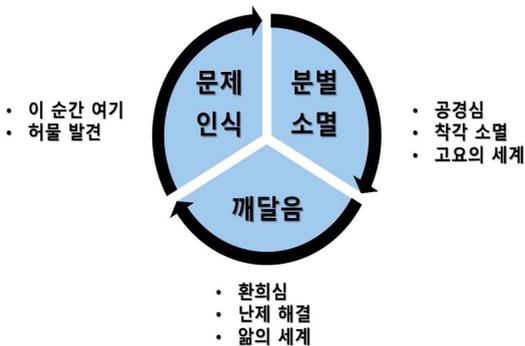
31) 2013년부터 매년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3박 4일간의 하계 금강경연수원 수련회가 열렸다. 2020년인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수련회 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백성옥 박사 문화재단은, 규모를 축소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준수한 가운데 부산 내원정사와 구덕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제9회 금강경연수원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10개 조로 나눠 금강경 독송, 수행 세미나와 선지식 수행점검, 태종대 포행,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BTN 불교 TV 뉴스, 2020년 11월 17일> 「재단법인 백성옥 박사 문화재단, 내원정사에서 수련회 개최」

32) 원당 법당에서는 ‘선지식과 함께하는 수행형 주말출가’라는 타이틀로 2박 3일간 진행을 해왔다. 제가 불자들이 혼자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법당으로 주말출가 독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았다. 셋째,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개인의 경험, 믿음, 사전 지식 등에 대한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e)³³⁾와 괄호치기(eninkammernp)³⁴⁾를 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면담 및 녹음의 중단 혹은 거부 선택권을 설명하였다. 연구 이외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완료 이후 녹음자료는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IV. 『금강경』 실천 수행자 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금강경』 실천의 계기는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다음과 같은 실천과정을 거친다. 즉 문제인식, 분별소멸, 깨달음인데 <그림 1>로 제시된다.



<그림 1> 『금강경』 실천의 난제 해결 방식

33) 외부세계에 대한 믿음들을, 특히 외부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실재한다는 믿음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4)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선입견 등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

1.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금강경』 실천의 가장 첫걸음이다. 여기에는 ‘이 순간 여기’, ‘허물 발견’의 요소가 있다.

1) 이 순간 여기

‘이 순간 여기’는 수행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머물러 살아오다 지금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인식하는 때이다.

고통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비로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더군요.(인승-구술정리)

2) 허물발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진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전제이며 출발점이다. 즉 고통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다. 그동안 모든 난제들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 늘 불평 불만이 오히려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남 탓만 했던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새 정신이 나고 진정한 탐색이 시작된다.

평생 남편과의 관계가 숨 막힐 정도로 좋지 않았다. 저는 인과응보 논리에서 철저히 길들여져 있었기에, 그 원인을 막연히 전생에 제가 지은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빚을 갚겠다는 애착이 원인이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고생은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미영-수행일지)

뜻대로 되는 일 없어 늘 불만이 가득했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살았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속의 성내는 마음이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왔다.(연화-수행일지)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이고 제가 봐도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 (중략) ... 부처님을 서서히 잊어가는 저는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중략) ... 그런데 나중에는 ... (중략) ... 꿈에서도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서 부처님을 찾고 스승을 찾아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심-구술정리)

어느 날 법당에서 『금강경』 1독을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저의 나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제 허끝에 날카롭고 비수 같은 창칼로 말을 하는 제 모습에 참회하고 참회했다.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롭고 쌀쌀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비수를 쏘고 상처준 것들이 떠올랐으며 좋은 말, 듣고 싶은 것들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뉘답하는 제 모습을 보며 바치고 또 바쳤다.(준석-수행일지)

자신의 허물이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것에서도 나타나 공부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잠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더 잘하고자 하는데, 집보다 공부 환경이 좋은 법당에서 하지 못해 갈등의 요인도 나타난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제일 부족한 것이 잠이더군요. 평소 습관을 바꾸려고 무던 애를 쓰는데 잠을 쫓느라 공부를 하는 건지 해매기만 해서 참 고통이 많았죠.(정진행-구술정리)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이 참 편하게 했었지요. 그러다 집에서 읽으니 영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 여건상 매일같이 법당에서 공부를 하기 어렵다 보니 이것 때문에 분별이 나서 공부가 힘들었던 같아요.(선현-구술정리)

마음공부의 출발은 바로 자기 마음속의 허물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2. 분별소멸

1) 공경심

공경심은 분별을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신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신심이라는 막연한 용어보다는 좀 더 실감나는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금강경』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정법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강렬하게 발원을 하는데 그 속에 공경심이 담겨 있는 것 같

다.

공부를 만나기 전에 말이죠. 진정한 참회가 되는데, 이 마음 닦는데 정말이지 정법 만나고 선지식 만나 공부 잘 할 수 있는 인연 짓게 해 달라고 말이죠. 늘 발원 했던 것 같아요.(하심-구술정리)

이러한 발원이 정법을 만나니 범문 듣기에 심취하는 모습으로 공경심이 나타난다.

도반으로부터 『금강경』 강의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이상하리만치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범문을 듣고 또 들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그렇게 야단쳤는데, 요즘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인터넷 유튜브 범문을 하루 온종일 들을 때도 많았고, 밤에 잘 때에도 범문을 켜놓고 자는 것이 일상이었다.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몰입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해보니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내 속의 강렬한 선지식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 되었다.(순희-수행일지)

공경심이 키워지는 것은 공부가 진행되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금강경』 실천을 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어느 날 법당에서 선지식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으로 가득했는데 선지식한테 가서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군요. 심지어는 중요한 질문내용마저 다 잊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경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정진행-구술정리)

우리의 아상을 없애는 데 밝은 이에 대한 공경심은 매우 필요함을 수행이 진행될수록 확인이 되었다.

2) 착각소멸

『금강경』 실천법의 핵심은 모든 난제와 재앙의 원인이 내 속의 아상(我相)에 있다. 하지만 그 아상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 이 정법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재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어머니의 치매,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고생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금강경』 실천을 하면서 어머니의 치매도 호전이 되고 … (중략) …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 (중략) … 그전에도 불교 수행을 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금강경』 실천은 바로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공부였죠. 다른 기도도 마음이 편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들쭉날쭉하고 재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한숨) … (중략) … 특히 가장 달랐던 점은 그동안의 기도는 나 잘되게 해 달라는 기복이었지요. 『금강경』 실천 기도는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 드리는 마음을 냄으로써 부처님 광명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순희-구술정리)

3) 고요의 세계

바람직한 수행의 특징은 바로 재현성이다. 즉 누구나 그 가르침대로 하면 예외 없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효과 중 분별이 쉬어지는 고요의 세계는 누구나 체험하는 보편적인 것 같다.

주위의 모든 업보에서 벗어나니 극락은 아니어도 삶이 편안해 진 것 또한 사실이다. 매사에 주눅 들어 안절부절 못하던 저도 『금강경』 공부를 하고부터 고요한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를 체득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체험한다.(영택-수행일지)

매일 새벽 내내 『금강경』 7독을 정성껏 하는 어느 날, 내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무아상이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 (중략) … 정말이지 아무런 분별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말로만 듣던 한 생각이 일만 년을 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사 스님의 표현이 실감이 나더군요. … (중략) …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때 어느 날, 그동안 그렇게 애태웠던 수마의 고통이 사라지며 잠이 본래 없다는 말씀도 조금씩 실감이 났었죠.(미영-구술정리)

공부가 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마음속의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3. 깨달음

1) 환희심

수행의 꽃은 바로 환희심이다.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거쳐 선정에 이르면 환희심을 체험하게 된다. 『금강경』 실천 수행도 마찬가지로 육바라밀

의 가르침 따라 하다 보면 깨달음의 첫 선물인 환희심을 맞이하게 된다.

새벽 내내 『금강경』 7회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 잠이란 천성이요 본능이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낮 시간 몸의 피로를 『금강경』 독송으로 해결하니, 잠을 비록 하루에 3~4시간 밖에 자지 못하였지만 머리는 더욱 맑아졌으며, 일체 근심걱정에서 자유롭게 뒀을 발견하였다. 늘 즐거운 마음과 환희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다. 비로소 태어난 보람을 찾게 된 것이다.(효선-수행일지)

『금강경』을 읽고 나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항상 든든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죠. 이것이 지속되자 알 수 없는 희열을 종종 체험하기도 했는데 … (중략) … 매사에 주눅 들어 안절부절 못했지요. 헌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뿌듯하며, 자신감이 충만하여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더군요. ㅎㅎ 그러니 이제 『금강경』 공부는 안할래야 안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선현-구술정리)

분별 망상을 제 가슴 한켠에 방치한 채 『금강경』 해설서를 노트에 써가며 읽기 시작했다. 그냥 빈 노트에 글씨를 써보는 것뿐이다. 그러다 『금강경』 21분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알아졌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영터리로 되어진 것도 하나 없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모두 다 부처님 뜻이고,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질서정연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즐겁게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칠 뿐이다.”(연화-수행일지)

어려움으로 고비가 생겼을 때조차 바칠 생각도 나지 않았고 짜증이 나며, 나에게 좋은 방향을 따지고 궁리하였다. 그런 후 내 생각이 옳지 않은 줄 알고 그 생각들을 바치면서 마음에 조금씩 환희심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금강경』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독송에 즐거움을 느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며 잠도 오지 않았다.(효선-수행일지)

저는 아미타경을 참 좋아했었죠. 그런데 그토록 그리던 극락이라는 부처님 세계를 말이죠. 저는 요즘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금강경』을 읽으며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까 말입니다. 그 시그시로 극락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발보리-구술정리)

공부가 실감나는 관건이 바로 마음속에서 깊은 환희심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의 아상이 소멸될 때 누구나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난제해결

난제해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난제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대로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절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안의 대소사 일에서도 어려움이 해결되는 체험들이 나타난다.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이러한 체험은 나타나고, 마음속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깨달아지면서 해결이 된다. 이루기 힘든 일들조차 본인의 신심 정도에 따라 일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동안 종손의 맡겨느리어서 집안의 대소사에 내가 아니면 매사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금강경』 공부를 하고나니 내가 없어도 아무 탈 없이 일이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참 신기하기만 했어예!(미영-구술정리)

예전엔 늘 뿌연 안개 속처럼 답답했던 정신이 맑고 투명해졌는데 4년간 비어있던 상가 임대도 채워지고, 그동안 한 달에 한 20일을 병원 다니고 약을 한줌씩 먹는 종합병원 환자였는데, 지금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 빼곤 다 끊어 버렸습니다. 약을 끊으니 절로 살도 빠져 날씬해지더군요.(선현-구술정리)

나에게는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정말 내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선지식의 법문이 이제는 오롯이 이해가 되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모를 것 또한 본래 없다는 확신이 들면서 생활에 말이죠. 그저 활력이 생기고 용기가 났습니다.(영택-전화통화)

고통과 괴로움의 덩어리였던 30년의 긴 어둠에 대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하는 마음과 바꾸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속에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러기를 계속 아마 보름 정도를 공부했던 거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의 목소리가 제 가슴속에서 들려왔어요. “제발 나를 놓아줘!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 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한참) 아! 피해자는 그 사람이었구나. 내 어리석음으로 내 잘못된 집착으로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사람과 자식까지 고생을 시켰구나. 저는 정말 망

연자실해졌어요! 그 후부터 나의 삶은 180도 바뀌어 졌는데, 그렇게 부부싸움으로 불만이 가득한 가정생활이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고 ... (중략) ... 아들 하나도 제정신을 차리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더군요. 참 그 기분이 묘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고 나니 일순간에 주변이 변하게 되니! (순희-구술정리)

3:7로 불리했던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대의원들과 만나 악수를 하면 이분이 나를 찍겠구나! 안 찍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다. 선거운동을 마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낙선한다 해도 후회는 없었다. 오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올라왔고, 이미 마음속에는 당선됐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개표 결과 67%를 획득함으로써 당선을 했다. 모두가 놀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더군다나 선거자금은 상대 후보의 5분의 1밖에 쓰지 않았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아상을 없애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생각이 모두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금강경』 가르침의 실천은 이렇게 ‘천인어수라가 개웅공양’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실감하였다.(준석-수행일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사가행 정진기도를 하려다 보니 밤12시부터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새벽 2시 이전에 일어나 꾸준히 『금강경』 7독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한 2년간 지속하다보니 거의 잠에서 완전히 해탈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였죠! 잠이란 것이 그동안 천성이고 본능이어서 도저히 안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몸이 피로하면 잠으로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행정진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금강경』 독송으로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잠은 3~4시간 밖에 자지 못했지만 낮에는 머리가 더욱 맑아지더군요. 근데 일체 근심걱정이 안 떠올라 참 신기했지요. 마음은 무척이나 자유로워지고, 정말이지 낮인데도 태양이 두 개쯤 뜬 것처럼 세상은 더욱 밝아 보였죠.(하심-구술정리)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어 격리시설에 격리 되었지만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6명이 함께 있었지만, 모두들 다 퇴원하였고 나 홀로 완치가 안되어 있어야 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감감한 병실에 혼자 있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절박했기에 24시간 TV를 틀어 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 오로지 금강경 가르침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병은 본래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분별만 바치면 모든 것은 구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금강경 제5분의 사구계를 낮이고 밤이고 외웠고, 금강경 독송을 틀어 놓았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삼매에 들었는가 보다. 어느 날 간호원이 와서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도 반감지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다. 바로 이곳이 어느새 극락이 되어 있었다. 3일만에 내가 겪은 금강경의 참맛이었다.(발보라-수행일지)

난제해결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드물게도 『금강경』 실천을 사업에 활용하여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2016년 욕심으로 시작하여 3억의 자금이 들어간 매장이 1년 만에 문을 닫고 투자한 자금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매장 시작할 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어느덧 내 입에서 매일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 (중략) … “나는 무시겁으로 남에게 빚진 적이 없노라.” 즉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었죠. 몇 달 후에 부도 직전이었던 저에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후배가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언니는 잘될 거예요! 쓰고 갚으세요!” 하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건의 계약이 이뤄져 제품 생산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구요. 코로나로 도소매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 회사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인숙·구술정리)

생활 속에서 난제를 만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기복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진·치 분별을 소멸함으로써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4. 논의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금강경』 실천의 긍정적인 변화 양상들은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유사하며, 어떤 것은 심리치료나 상담의 목표를 뛰어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금강경』 실천의 치료적인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아상(我相)이라고 하는 탐(貪)·진(嗔)·치(癡) 중생심(衆生心)이다. 중생심을 닦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은 『금강경』 가르침의 실천에 있었다.

『금강경』의 대표적인 부처님 말씀, “그대 생각이 모두 착각인 줄 깨닫게 되면 곧 여래를 친견하리라.”³⁵⁾라는 말씀을 참으로 믿고(信), 아침저녁으로 직접 석가여래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마침내 알아질 것이다(解). 『금강경』을 실천 즉 반야행을 하라(行). 그 방법은 『금강경』 제 3

35)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 8, 749a),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분과 4분 등에 있다. 즉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부처님’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무주상보시하라. 즉 “무슨 생각이던지 부처님께 바치고 남을 대할 때 주는 마음으로 대하면, 중생심(衆生心)이 불심(佛心)으로 바뀌는 『금강경』의 실천이다. 그리하면 분별이 사라지고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이며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깨달음이고 참다운 지혜인가를 선지식에게 내놓고 검토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證).

참여자들이 『금강경』 실천을 해보니 크게 네 가지의 결과가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이타적인 기도로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예전의 기도나 수행은 대개 내가 잘되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 그런데 부처님 기쁘게 해 드리는 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훨씬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는다[一切唯心造]. 대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외부 조건이 안 맞아 어렵고, 혹 마음 밖에서 무엇이 이뤄지면 이만하면 되었다는 방심으로 매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이러한 내 힘이 닿지 않는 외부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개선의 여지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내 속에서 찾고 내가 지은 업(業) 때문이니, 내가 참회를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담음으로 난제에 대한 분명한 탈출구를 찾게 된다.

셋째, 『금강경』의 실천으로 재앙은 분명히 소멸된다(空의 진리). 『금강경』 가르침에서 모든 것은 내 생각이 만든 것이고[一切唯心造] 그 생각은 착각이며 본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군형론(軍形論)에서 말하는 것처럼 “싸움에 이기는 병사는 먼저 이긴 다음에 싸움을 구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운 다음에 이기기를 구한다.” 즉 싸움에 이기려면 마음으로 먼저 이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상(我相)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믿음 하에서 담으면 언제나 아상이 소멸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넷째, 기도의 결과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라는 뜻은 누구나 그 가르침대로 하면 예외 없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재현성에 있다. 수행의 출발이 성인의 가르침에 있고, 그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며 누구나 실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하다 보니, 저마다의 난제는 달라도 『금강경』의 실천 결과는 분명하다.

다섯째, 전에는 어떤 일을 이룰 때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내 의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금강경』 공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가장 먼저 험떡이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금강경』 독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식으로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왔다.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무능(無能)에서 벗어나 큰 능력자가 되며, 무지(無智)에서 벗어나 큰 지혜(智慧)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업장의 소멸로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새 정신이 나면서 경전에서 말하는 ‘참 나’의 발견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체험의 깊이가 더욱 깊은 참여자는 자신의 존재감이 전 우주와의 교감 및 연결로 체험하기도 하였다.

V. 맺는 말

본 연구는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한 수행자들의 일상 경험을 주제로 ‘체험’ 그 자체를 면밀히 탐색하고 드러내고자 한 시도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금강경』 실천 수행자 중 자료의 포화를 고려하여 11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2020년 8월~2021년 2월까지 각각 2~3회, 60분~1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수행일지, SNS 문답, 전화 통화내용 등을 통한 자료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이타적인 기도로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쉽게 하였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는다[一切唯心造]. 셋째, 『금강경』의 실천으로 재앙은 분명히 소멸됨을 실감하였다.(空의 진리). 넷째, 기도의 결과는 저마다의 난제는 달라도 『금강경』의 실천 결과는 분명한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금강경』 공부를 통해 험떡이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금강경』 독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생활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첫째,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개인 연구의 한계로 여러 직업군을 참여자로 하는 보다 폭넓은 『금강경』 실천 경험의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 연구의 질적 현상들을 양적 연구로도 접근하거나 양적·질적 혼합연구로 검증한다면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강경』 실천 수행은 불교인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진 수행법이기에 체계적으로 중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험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의 수행 기간은 1년에서 10년 사이이다. 따라서 1년 이내 혹은 10년 이상 장기 수행자들의 집중 탐색을 통해 수행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일반 불자들에게 『금강경』 실천의 목적은 생활화를 통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일 것이다. 일반 불자뿐만 아니라 각종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방면에 인재 발굴이 시급한 요즘,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심도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본다.

참고문헌

-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正藏8
- 금강경독송회,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용화, 1996.
- 김강녕, 「백성욱 박사의 경제사상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0.
- _____, 「만해 한용운의 간화선과 대중불교론」, 『불교학보』 제80집, 동국대 출판부, 2017.
- _____, 「백성욱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 역사와 성격」, 『민족사상』 제15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1.
- 김기룡, 『금강산 수도에 미륵부처님 친견기』, 불교통신교육원, 1983.
- 김동규, 『활불로 추앙받던 백성욱 박사님의 금강경 이야기』,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09.
- 김원수,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공경원, 2013.
- _____,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청우당, 2018.
- 김희중, 「금강경 독송과 가피 사례 고찰」, 『2020년 한국불교학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2020.
- _____,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수행 공동체 연구」, 『민족사상』 제15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1.
- 박성현·박정숙, 「집중적 위빠싸나 명상 경험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18호, 한국심리학회, 2006.
- 박성현의 5인, 「간화선 수행 체험의 심리학적 분석」, 『종교연구』 제71호, 한국종교학회, 2013.
- 박성현의 2인, 「자애명상의 심리적 과정 및 효과에 관한 혼합연구 : 자애미소명상수행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8호, 한국심리학회, 2016.
- 백성욱,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 김영사, 2021.
- 성승연·박성현, 「간화선 집중수행 체험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23호, 한국심리학회, 2011.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신명희(정운),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에 나타난 심법 소고」, 『동아시아 불교문화』 제29호,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17.
- _____, 「金剛般若波羅蜜經의 수행체계 연구」,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2021.

- 원혜영, 「백성옥 박사의 과학관과 수행정신 : 인간수행과 우주원리의 등가성」,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임혜영,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중사자의 불교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비불교인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43호, 인도철학회, 2015.
- 정경환, 「백성옥 박사의 세계관과 정치철학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정천구, 「白性郁 博士의 佛敎思想에 관한 小考」, 『釋林』 제19집, 1985.
- _____, 「금강경 독송 수행법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4.
- _____, 「백성옥 박사의 삶과 수행정신 : 원효대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제14권 제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_____, 「백성옥 박사의 불교철학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_____, 「백성옥 박사의 삼지(三枝) 사회조직론 연구」, 『민족사상』 제14권 제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20.
- 조준호, 「불교 경전의 결집 과정과 논쟁점 : 상좌불교, 무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불교평론』 4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20.
- 황상준,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 재가불자의 가피 사례연구」, 『한국불교학』 제86집, 한국불교학회, 2018.
- 메리암 사란 B, 허미화 역, 『질적 사례연구법』, 양서원, 1998.
- Creswell, J. W,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원제: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학지사, 2015.

<BTN 불교 TV>

『월간 불교와 문화』

<현대불교>

<법보신문>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 of Baek Sung-wook's Performance of the Diamond Sutra Reciting Method

Kim, Hei-jong
(Ph.D. Candidate in Zen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practitioners practicing Dr. Baek Sung-wook's practice of reading the Diamond Sutra. Eleven of the practitioners of Diamond Sutra conducted by the Barun Law Research Institute,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were selected, interviewed twice, three times, and 60 to 120 minutes, respectively, and analyzed data through performance journals, SNS questions, and phone calls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participants easily experience me disappearing with altruistic prayers. It was found that it was easier to experience the disappearance of me because I practiced it for the purpose of pleasing the Buddha. Second, by practicing the teaching of finding the cause of pain in me, I found a clear way out of the difficulty. Third, I experienced that disaster was an illusion and clearly extinguished by the practice of the Diamond Sutra. Fourth, the process of prayer is very reasonable and can be practiced by anyone, so even if each difficulty is different, clear results were found, and scientific elements were discovered. Fifth, it brought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lifestyle in which the panting heart was first dedicated to Buddha and the Diamond Sutra was read.

As such, most of them have escaped from unhappiness and become happy, escape from incompetence and become a great capable person, and gained great wisdom from ignorance. Through this, the participants came to understand that they were not themselves in the past, but that they were born anew and finally accepted the discovery of "true" in the scriptures. Participants with deeper experience experienced their presence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with

the whole universe.

Key words

Diamond Sutra, Baek Sung-wook, A way to cultivate the Mind, Diamond Sutra Reciting method, Serving Buddha in His Holiness.